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전통윤리' 교과의 적용방안에 대한 한 고찰

-「학교모범」의 활용을 중심으로-

양 방 주*

目 次

- I. 서 론
- II. 제7차 교육과정의 '전통윤리' 교과
- III. 「학교모범」의 의의와 내용
- IV. 적용 방안
- V. 결 론

I.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의 내용과 가치를 탐구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것을 교육하는 이유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한가지 원인은 그동안 전통이 뿌리 내려 있지 못한 까닭으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를 예로 들어 그 계승과 발전의 유형을 살펴 보면 첫째, 전통문화 자체가 현대문화로 계승 발전되는 유형, 둘째, 전통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비전통적인 문화(서구문화)가 부분적으로 유입되는 유형, 셋째, 전통문화와 비전통적 서구문화가 갈등을 겪는 유형이 있다.¹⁾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와 같은 셋째의 유형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 간에 이질성이 심하여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

* 윤리교육과 교수

1) 정재걸, "학교교육과 전통문화 교육", 『전통과 현대(98. 여름호)』, (전통과 현대사, 1998), p.39.

기도 하다. 경제개발 측면에서 본 전통의 문제, 민족 주체성의 입장에서 본 전통의 문제에 이어 아시아적 가치 논쟁 등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은 정체성의 정립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²⁾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상의 정립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통적인 것의 장점을 살려 나가고, 전통적인 것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새로운 것들에 의해 발생된 문제들을 치유·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것 중에 그 바탕이 되는 중요한 것이 전통윤리이며 그에 관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전통윤리' 교과목이 신설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도덕교육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전통교육 차원에서도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왜냐 하면 전통윤리는 전통사상과 전통문화적 요소를 다 갖고 있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관련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통윤리의 교육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전통윤리의 개념과 내용 나아가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한결같지 않은데서 오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시행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충분치 못하다는 교육시행상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과를 설치하여 그 적용방안을 연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본 고찰 역시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라 하겠다.

'전통윤리' 교과와 적용 방안에서는 시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³⁾ 전통윤리에 관한 우리의 고전들에서 그 내용을 취하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栗谷 李珥(1536~1584)의 「學校模範」을 소재로하여 그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왜냐 하면 「학교모범」은 초·중등교육에 이용되는 일반적 교재인 「소학」, 「격몽요결」, 「대학」, 사서, 「명심보감」 등이 주로 윤리 규범들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학문관, 교육관, 학교 생활 등을 다루고 있는 몇 안되는 고전이기 때문이다. 고찰은 우선 「학교모범」의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나서 적용 방안으로 교재 개발시의 적용과 교

2) 함재봉, "한국정치담론의 어제와 오늘", 『전통과 현대(제2호)』, (전통과 현대사, 1997), pp.18~19.

3) 오석중,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 『전통윤리』의 적용방안과 교과서 개발", 『도덕 윤리와 교육(10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편, 1999), pp.101~115.

수·학습 방안의 모색 순으로 이루어진다. 적용은 이미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전통윤리' 교육과정에 따른다. 이 고찰의 한계는 '전통윤리'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모범」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는 점과 자료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한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고찰은 '전통윤리' 전 과정을 개발하는 데 하나의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II. 제 7차 교육과정의 '전통윤리' 교과

1. 성격과 목표

먼저 '전통윤리'의 위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윤리교육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의 하나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걸쳐 실시되고 또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보통 교과 중의 하나로 고등학교 2~3학년에 걸쳐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을 통해 실시된다. '전통윤리'는 2개의 심화 선택과목 중 하나로 4단위로 실시된다. '전통윤리'의 특수성은 학교나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지 않으면 설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적으로는 일반 선택과목인 '시민윤리', 심화 선택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경쟁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국어와 사회의 여러 과목들과 경쟁해야 된다. 또한 전체적인 시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과의 성격을 보면 '전통윤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윤리적 삶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음미하여 한국인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인식과 자세를 보다 확고히 정립하게 하려는 과목이다. 따라서 '전통윤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지켜 온 전통윤리의 기본 정신과 내용, 그리고 그 현대적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자신과 가족에게 가치 있는 삶, 친족·이웃·교우관계에서의 바람직한 삶, 국가·사회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의 자세를 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 교육, 그리고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예절 교육과 민족 정체성 교육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전통윤리'는 학생들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윤리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민족 주체성을

4) 교육부, 『도덕과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6, 1997), p.67.

지닌 미래 지향의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목이다.”⁵⁾

그 구체적인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실천했던 윤리적 삶의 기본 정신과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첫째,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전통윤리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 본질과 기본 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전통윤리를 오늘날의 실제 생활 속에서 계승하려는 자세를 지니게 하며, 둘째로 전통윤리에 나타난 개인·가족 생활에서의 윤리적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의 실제 생활에 적용, 심화하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하고, 셋째로 전통윤리에 나타난 친족, 이웃, 교우 관계에서의 윤리적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의 실제 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하며, 넷째로 전통윤리에 나타난 국가, 사회에서의 윤리적 규범과 자연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의 실제 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이다.”⁶⁾

2. 내용과 방법⁷⁾

‘전통윤리’는 4개의 영역에 12개의 주요 내용과 36개의 단계별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영역은 전통윤리의 의의와 기본 정신이다. 단계별로는 전통윤리의 의미와 중요성에서는 전통윤리의 의미, 전통윤리를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전통윤리의 중요성을, 전통윤리의 본질과 기본 이론에서는 전통윤리의 사상적 배경, 전통윤리의 우주와 생명에 대한 이론, 전통윤리의 인간 본성과 인간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전통윤리의 현대적 계승에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전통윤리의 위상, 전통윤리의 보편성, 전통윤리의 바람직한 계승과 현대적 적용을 다룬다. 둘째 영역은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이다. 단계별로는 인격 도야와 수신에서는 천지의 도와 인간의 덕, 자아 성찰과 수행, 극기복례를 통한 인격 수양을, 부모·조상 공경과 효친에서는 효의 기본 정신, 효의 실천 과제, 조상 섬김의 전통과 그 현대적 의미를, 부부·형제 자매 관계와 사랑에서는 음양 원리와 이성, 부부 관계와 사랑, 형제 자매관계와 우애를 다룬다. 셋째 영역은 친족·이웃·교우 관계와 바람

5) 위의 책, p.67.

6) 위의 책, p.68.

7) 위의 책, pp.68~72, 요약

직한 삶이다. 단계별로는 친족·이웃 관계와 화목에서는 친족간의 예절, 어른과 노인 공경 전통, 이웃 생활에서 경애와 자비를, 교우 관계와 신의에서는 친구간의 믿음, 친구간의 의리와 권면, 남녀간의 순결을, 관혼상제와 예절에서는 관례·혼례, 상례·제례, 일상 생활 예절을 다룬다. 넷째 영역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이다. 단계별로는 국가 생활과 국민의 도리에서는 민본 사상과 위민 정신, 충성과 호국 정신, 봉공과 청백리 정신을, 사회 생활과 정명 정신에서는 의리, 검약과 선비 정신, 근로와 장인 정신, 공동체 의식과 협동 정신을, 전통적 자연관과 자연 친화에서는 전통적 자연관의 기본 정신, 서구적 자연관과 환경 문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다룬다.

'전통윤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가. 전통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잘 부각시켜 학생들의 실천 의욕과 행동 성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나. 전통윤리의 내용과 기본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생활에서의 실천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되, 학생들의 자발적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생들이 전통윤리를 배우는 것이 과거 지향적이고 복고적인 사상이 아니라 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윤리의 우수한 측면, 전통윤리의 세계성과 현재성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라. 감동·감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해 준다.

마. 옛 성현의 가르침 중에서 고등학생 수준에 알맞는 원본을 발췌하여 그의 의미와 정신을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 탐구 과정을 통해 이해하게 하는 강독 또는 원독의 방법을 활용토록 한다.

바. 현대 사회의 제 규범들과 대립,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그 기본 정신과 의미를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 현장 학습법이나 체험 학습법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전통윤리의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평가의 방법은 도덕교육의 일반적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적용 방안의 원칙과 방향

적용 방안이라 함은 상기한 교육 과정의 개설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선

정하고 조직하며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핵심은 교과서의 개발이라 하겠다. 교과서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학교 교육에서 교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교과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개정 성과 또한 교과서가 그 개정의 목표와 방안을 얼마나 잘 반영하여 편찬되느냐에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7차 교육 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과 적성·진로에 적합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실천,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개정의 중점을 두고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⁸⁾

첫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 방침, 학교 급별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종래의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교교육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고,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연구·개발 형태의 교과서 개발의 장점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 진단을 통한 기초연구를 충실히 하고, 해당 교과목의 교육과정 상세화 연구를 통한 학생 중심의 집필 세목을 세밀히 작성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의 책임있는 집필을 위하여 ‘집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전통윤리’의 교과서 개발은 아직 연구 중에 있다. 교과서 개발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토대로

8) 이경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방향”,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 1999)

'전통윤리'의 적용 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⁹⁾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의 문제이다. '전통윤리'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으로 설정된 이유는 국민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전 지구적 윤리정립 방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전통윤리' 교육 내용의 선정 원칙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조상들이 소중시해 왔던 전통윤리 규범과 정신들 중 특히 오늘날에도 그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인간화·도덕화와 사람과 자연 사이 관계의 일체화의 회복에 새로운 대안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첫째, 동양 고전에서 선인들의 언행과 義論 중 오늘날에도 시대적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과 현대 산업사회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대안으로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인간화·도덕화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일체감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가려 뽑는다. 둘째, 자료의 양식을 다양화하여 윤리 규범이 위주가 되는 격언, 성정 함양에 관련이 깊은 운문, 그리고 의리를 깊고 정밀히 하는 것과 관련된 논설, 그밖에 어록, 서사 등을 망라하여 뽑는다. 셋째, 한문 고전에서 뽑을 경우는 그 내용을 현대 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한다. 한문 원전의 문장도 현대 국어의 감각에 맞게 검토하여 제시한다. 넷째, 원전의 근본정신을 넓히고 실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가까운 예화나 사건들의 내용을 현재의 신문이나 기타 자료에서도 발췌하여 제시한다. 다섯째, 같은 과정에 속하는 '도덕'과 '시민윤리'와의 계열적 심화 수준을 고려하여 전통윤리에 관한 너무 기초적인 이해에 머물거나, 고등학생의 단계를 뛰어 넘는 내용이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습의 원리와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윤리가 우리의 성현들과 조상들에 의해 권위적으로 형성되고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것을 권위적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윤리 관념들을 윤리적 근본에 부합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학습요소는 전통적 윤리 규범들에 대한 본질적 인식을 위해 이치에 대한 사고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치에 대한 소위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학습이 강조될 때 학생들은 전통 규

9) 오석종, 앞의 글, pp.101~105, 요약

범을 권위적으로 수용할 때보다도 더 확고한 윤리적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습 원리에 따라 연령이 낮은 단계의 학습자에게 행동과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알아듣기 어려운 이치만을 학습하게 한다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전통윤리'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학습 원리는 윤리 규범에 대한 행동 실천적인 학습요소의 비중은 줄이면서, 이치를 묻고 따지는 '격물치지'와 같은 반성적 사고에 학습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윤리' 교과서 체제 구성에서 기본적 목표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전통윤리 규범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윤리적 추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윤리 학습을 소재로 하여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Ⅲ. 「학교모범」의 의의와 내용

1. 「학교모범」의 성격과 의의

「學校模範」은 栗谷의 많은 저술 중 「聖學輯要」, 「擊蒙要訣」과 함께 교육에 관한 3대 저서중의 하나이다.

「성학집요」는 그가 40세 되던 해에 홍문관 부재학이 된 후 임금에게 지어 올린 군왕의 道에 관한 책이다. 내용 구성은 주로 사서 오경에서 수기치인에 관련된 글을 뽑아 분류 배열하였는데 宋儒들의 글을 인용하여 해석을 가하고 자기의 글을 按語로서 첨부하였다.¹⁰⁾ 여기에서 사서 오경의 자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按語로서 각장마다 붙인 그의 말이다. 이를 통하여 그의 교육사상을 알 수 있다. 「성학집요」는 교육(학문)의 내용을 밝힌 저술이다.

「격몽요결」은 그가 42세에 완성한 학자의 道學 입문서이다. 스승으로서 자신을 추스리는 목적과 함께 주로 학도들이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擊蒙이란 「주역」에서 인용한 말인데 몽매함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이 책의 내용은 뜻을 세움(立志), 낡은 습관을 고침(革舊習), 바른 몸가짐(持身), 책을 읽음(讀書), 부모를 섬김(事親), 상을 치르는 예법(喪制), 제사 지내는 예법(祭禮), 가정 생활(居家), 사람을 대함(接人), 세상에 나가는 일(處世)등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일상

10) 손인수, 『율곡의 교육 사상』, (박영사, 1982), p.24. 참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인간 규범의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천자문」, 「董蒙先習」에 이어 읽는 책으로 되어 있었다.¹¹⁾ 이런 면에서 보면 「격몽요결」은 학문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 가정과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마음 가짐과 행동 거지를 밝혀 주고 있는 책이라 하겠다.

「학교모범」은 그가 「격몽요결」을 지은 5년 후인 47세에 선조대왕의 명을 받아 지은 글이다. 내용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는 自序와 16장의 구체적 규범 그리고 학생의 선발과 양성 방안을 제시한 事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내용인 16장의 규범을 보면 교육의 목표와 과정, 방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교육현장적 내용과 학교 생활의 마음 가짐과 행동 그리고 학생의 사회적 마음 가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학생의 규범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立志, 檢身, 讀書, 慎言, 存心, 事親, 事師, 擇友, 居家, 接人, 應舉, 守義, 尙忠, 篤敬, 居學, 讀法이다. 「격몽요결」과는 대체로 비슷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학문에 입문하려는 자가 아니라 일단 학문에 입문한 학생 또는 선비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가정이나 사회에서 먼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서 더 나아가 교육기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마친 후 사회 생활을 통해 행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차이점이 있다. 그 의의는 첫째, 교육의 자료로서 볼 때 기존의 많은 자료들, 예를 들면 「소학」, 「대학」, 「명심보감」, 「근사록」 등은 구체적 윤리 규범과 지식을 다루고 있거나 가정·사회교육 차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교육관, 학문관을 다루는 것들은 많지 않은데 「학교모범」은 학교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왕명에 의해 교육의 쇄신을 위한 일종의 헌장적, 지침서적인 성격을 띠고 쓰여졌다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전통윤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학문관, 교육관의 정립이라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학문의 연구와 교육의 목적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해악을 가져오게 된다. 학문과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마음 가짐은 구체적인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학문 연구와 교육이 실용성만을 추구하여 도구화되다 보니 그 본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인격의 완성이나 정의로운 사회 발전은 도외시되고 있다. 뿐만

11) 손인수, 『한훤당·율곡·우계의 교육사상』, (배영사, 1989), pp.188~189.

아니라 학문 연구가 균형을 잃어 가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모범」은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기본이념과 실천규범의 제시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러한 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전통윤리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규범들만 익힐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익히는 기본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과정의 면에서 봐도 중등교육을 마치는 단계에 있으며, 그동안 규범들을 익히고 생활화하는 데서부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인식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단계에 이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윤리'에서 다루는 데 매우 적합하다.

2. 「학교모범」의 내용 체계¹²⁾

자서(自序)

천부(天賦)의 덕은 누구나 다 받았건마는, 사도(師道)가 폐(廢)하여 끊어지고 교화(教化)가 밝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떨쳐 일어나고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선비의 풍습이 경박하여 지고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부박(浮薄)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아니하여, 위로는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자리에 헛점이 많으며,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부패하고 윤리의 기강이 날로 어지러워졌다. 이제 장차 구습(舊習)을 일소해 버리고 선비의 기풍을 크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비를 선택하여 교화하는 도를 이미 다하고, 대략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아 「학교모범」을 만들어서 많은 선비로 하여금 몸가짐과 일해 나가는 규범을 정하게 하니 제자(弟子)된 자는 참으로 마땅히 좃아서 행하여야 할 것이거니와, 스승된 이는 더욱 이 법규로써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 사표(師表)의 도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1) 입지(立志)

배우는 자는 먼저 뜻을 세워 가지고 도(道)로써 자임(自任)할 것이다. 도는 원래 고원(高遠)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천지(天地)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민생을 위하여 극(極)을 세우며, 지난 날의 옛 성인을 위해서 꿋

12) 이 내용은 栗谷全書 卷十五 雜著(二) 學校模範을 번역한 朴榮完, 『學校模範』(現代社, 1984)을 참고하여 전통윤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16장의 규범을 소개할 목적으로 그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작성하였다.

던 절학(絶學)을 계승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태평을 열어 주기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퇴영(退孳)하여 스스로 앞길에 중지선을 그어 두고 진보하지 않는 생각과 고식(姑息)하여 스스로 용서하는 버릇은 털끝만큼이라도 가슴속에 생겨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훼손과 명예, 영화와 치욕, 이해(利害)와 화복(禍福)은 일체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분발하고 힘써서 꼭 성인이 되어야 한다.

2) 검신(檢身)

배우는 자는 구습(舊習)을 씻어 버리고 오로지 학문을 지향하여 몸가짐과 행위를 검속(檢束)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는 밤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의관은 정숙하게, 용모는 장중하게, 보고 들음은 단정하게, 거처는 공경하게, 걸음걸이는 똑바르게, 음식은 절제 있게, 글씨는 조심성 있게, 책상은 가지런하게, 서재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구용(九容)으로써 몸을 가져야 하니 족용중(足容重), 수용공(手容恭), 목용단(目容端), 구용지(口容止), 성용정(聲容靜), 두용직(頭容直), 기용숙(氣容肅), 입용덕(立容德), 색용장(色容莊) 할 것이다. 또는 예(禮)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 것이다. 부정(不正)한 안색과 호사스런 속악(俗樂)의 소리와 더럽고 방탕한 놀이와 잇따른 문란한 놀음은 더구나 엄금해야 한다.

3) 독서(讀書)

배우는 자가 이미 선비로서 입지(立志)하고 검신(檢身)하였다면 모름지기 독서와 강학(講學)으로 의리를 밝힌 연후(年後)야 비로소 학문에 나아가는 길의 방향이 혼미하지 아니할 것이다. 스승에게 배우되 배움은 넓어야 하고 질문은 소상하게 해야 하며, 생각은 근신(勤愼)해야 하고 분별은 명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잠기고 젖어서 반드시 마음으로 터득하기를 기할 것이다. 매양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얼굴을 정숙하게 가지고 단정히 앉아서 뜻을 한결같이 하여 한 가지 글에 익숙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글을 읽을 것이요, 많이 보기만 힘쓰지 말아야 하고, 기억하는 것만 일삼지 말아야 한다. 글 읽는 순서는 「소학」을 먼저 배워 그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대학」과 「근사록」으로써 그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논어」·「맹자」·「중용」 등 오경(五經)을 읽고, 「사기」와 성현의 「성리서」를 찬찬히 읽어 뜻을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할 것이다. 성인이 짓지 않은 글을 읽지 말고, 무익한 글을 보지 말아야 한다. 글 읽는 여가에는 때로 거문고 타기, 활쏘기 연습, 투호(投壺) 등의 놀이도 좋으니, 모두 각자 법도가 있으니 때가 아니거든 유희하지

말고, 장기·바둑 등 잡희에는 결코 눈을 돌려서 실제의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신언(慎言)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실을 닦으려면 모름지기 언어를 삼가야 한다. 말을 반드시 정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해서, 때 맞추어 말하고 긍정이나 허락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목소리를 조용히 하고 엄숙해야 하며, 익살이나 지껄임을 말아야 한다. 다만 문자와 이치에 유익한 말만 하고, 허황한 귀신 이야기나 거리의 상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리들과 잡담으로 날을 보내거나, 시대의 정치를 함부로 논란하거나, 남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모두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니 일체 조심해야 할 것이다.

5) 존심(存心)

배우는 자가 몸을 닦으려면 안으로 마음을 바로 잡아서 외물(外物)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만 마음이 태연하여 여러 가지 사특함이 물러나고 진실한 덕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의 먼저 할 일은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본연의 자세로 양성하여, 조용스런 가운데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사리에 어둡지도 앓음으로서 중요한 근본을 세워, 만약에 일념(一念)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선악의 기미를 살펴, 그것이 선(善)일 때에는 그 옳은 길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악(惡)일 때에는 그 싹을 근절하여 마음을 양성함과 살핌에 노력이 끊이지 않으면 동정(動靜)·언행(言行)이 옳은 길의 당연한 법칙에 부합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6) 사친(事親)

선비의 온갖 행실에 효도와 우애가 그 근본이요, 죄목(罪目) 3천 가지에 불효가 제일 큰 것이다. 아버지를 섬기는 이는 모름지기 공경을 극진히 하여 어른의 명을 순순히 좇아 순종하는 예(禮)를 다하고, 즐거움을 다하여 음식의 봉양을 드리고, 병환에는 극진한 근심으로 병약의 치료를 다하고, 상사(喪事)의 행사에는 엄숙함으로 추모의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겨울에는 따스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아침·저녁으로 잘 보살펴 드림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옵는 것을 모두 성인의 교훈에 좇지 않음이 없게 하고, 부모가 만일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성의를 다하여 진실을 말씀드리고 말리어 점차로

도리를 깨닫게 하여야 한다. 자식은 내 몸을 돌아보아 온갖 행실이 갖추어지고 시종 덕을 온전히 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비로소 아버이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7) 사사(事師)

배우는 자가 성심으로 도에 지향한다면 모름지기 스승 섬기는 도리를 높여야 한다. 임금·스승·아버지는 섬기기를 같이 하는 것이니,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으랴. 평상시에는 모셔 받들며 존경을 다하고 교훈을 돈독히 믿어서 늘 명심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스승의 말씀과 행하는 일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는 모름지기 조용히 질문하여 그 득실을 분별할 것이요, 곧 자기의 사견(私見)으로서 스승을 비난하지 말 것이다. 또는 옳은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승의 말만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옳지 못한 것이다. 봉양에 대해서는 힘에 따라 성의를 극진히 하여 제자의 직분을 다할 것이다.

8) 택우(擇友)

도를 전해받고 의혹을 해결하는 데는 스승에게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서로 의뢰하여 인(仁)을 돕는 것은 진실로 벗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모름지기 충성과 신의, 효도와 우애, 강직하고 방정하며, 돈독한 선비를 선택하여 교우(交友)를 정하여 허물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고 선행(善行)으로써 서로 권하고 충고하여 덕행을 닦음으로써 벗의 인륜(人倫)을 다할 것이다. 만일 뜻을 세움이 돈독하지 못하고, 자유의 절제가 엄밀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님과 즐겁게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말이나 기운만 숭상하는 자는 모두 벗으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9) 거가(居家)

배우는 자가 이미 몸과 마음을 닦았으면 모름지기 가정에서 윤리를 다하여 형은 우애하고 아우를 공순하여 한 몸같이 보며 그밖에 모든 집안 일 처리는 극진한 도리를 쓰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10) 접인(接人)

배우는 자는 사람을 접하는 데 예의를 준수하여, 어른을 공손히 섬기되 어린이는 자애(慈愛)로써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가족들에게는 돈독하고 화목하며, 이웃 마을을 잘 사귀어 환심(歡心)을 얻어야 하고, 매양 덕과 학업을 서로 권장하고 허

물은 서로 경계하며, 예의의 풍속을 서로 성취시키고, 어려운 일은 서로 구휼(救恤)하여 남을 건져 주고, 항상 남을 이롭게 할 생각을 가져야 하되 남을 상해(傷害)하는 생각은 털끝만치라도 마음 속에 머물러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 응거(應舉)

과거에 급제는 비록 뜻 있는 선비가 애써서 구할 바 아니나, 요즈음에는 그것이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있으니, 만일 도학(道學)에 온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고 물러남을 예의로 하는 이는 과거를 숭상할 까닭이 없지마는 국가의 부름으로 과거에 응하게 되면 또한 마땅히 성심으로서 공(功)을 이룰 것이요, 날짜만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과거 공부도 나날이 일하는 한 가지 일이니 실제의 공부에 무엇이 방해될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매양 과거가 뜻을 빼앗을가 염려하는 것은 득실에 생각이 움직임을 면치 못하는 까닭이다. 또 요즈음의 선비들의 고질은 게으르고 방종하며, 글읽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도학을 사모한다 하면서 과거 공부를 소홀히 하여 한갓 세월만 보내고, 학문과 과거 공부 중 한 가지도 성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이니 매우 경계할 점이다.

12) 수의(守義)

배우는 자는 무엇보다도 의(義)와 이(利)의 분별을 밝게 하여야 한다. 의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도둑의 무리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배우는 자는 털끝만큼의 이욕(利慾)이라도 가슴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해서는 아니된다. 주고 받고 하는 데 언제든 그 당연한가 아닌가를 살피고, 물질의 얻음이 있을 때에는 의를 생각해야 하고, 털끝만치라도 구차스럽게 지나쳐서는 아니된다.

13) 상충(尙忠)

충직하고 순후함과, 기개와 절조는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지키는 절조가 없어서 모호한 것으로써 충성하고 순후한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근본의 덕이 없이 강하고 과격함으로써 기개와 절조인 체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세속이 경박하여 실덕(實德)이 날로 상실되어 남에게 추잡스레 아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만스럽게 기질을 숭상하는 자가 또 있어서 중용을 지키는 선비를 얻어 보기가 실로 어렵게 되었다. 명색이 학문한다는 선비로서 자신의 재주와 권위만 믿고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

이다. 조그마한 이득으로써 만족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자는 기개와 절조있는 자의 일이 아니다. 요즘 선비들의 이와 같은 병통은 모두 예법에 관한 학문이 밝지 못하여 허례와 교만이 습성을 이룬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예의에 관한 학문을 밝힘으로써 웃사람을 높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면 충직하고 순후(淳厚)함과 기개와 절조를 다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4) 독경(篤敬)

배우는 자의 덕에 나아감과 공부는 오직 공경을 돈독히 하는 데 있다. 공경에 돈독하지 않으면 다만 빈 말일 말이다. 모름지기 표리(表裏)가 한결같이 되어 조금도 그침이 없어야 한다. 공부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계속하되 그 효과는 구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쉬지 않고 힘쓰다 죽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이 「실학」(實學)이다. 만일 힘쓰지 않고 다만 박식(博識)을 논함과 이야기만으로 행세의 방법을 삼으려는 자는 선비의 적이다.

15) 거학(居學)

배우는 자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모든 행동거지를 영(令)에 의거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거처할 때에는 반드시 토론으로 건문을 넓히고,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돌보아 가지런히 정돈하고 엄숙하여야 한다. 만일 스승이 학교에 있으면 읍(揖)을 하는 예를 행한 뒤에 질문하여 허심(虛心)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늘 잊지 말 것이요, 무익한 글을 물어서 마음과 힘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16) 독법(讀法)

사당(祠堂)에 배알하고 읍하는 예를 행하며, 예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정하고 스승이 있으면 북쪽 밑에 앉고 여러 생도는 삼면(三面)에 앉는다. 장의(掌議)가 소리를 높여 백록동교조(白鹿洞教條) 또는 「학교모범」을 한 번씩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 토론하여 실질적인 공부로 타일러 힘쓰게 해야 하며, 만일 의논할 일이 있을 때에는 곧 토론할 것을 정하여야 하고, 여러 생도들이 사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편지로서 모이는 장소에 알려야 한다. 사고를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스승에 고하여 벌칙을 의논하여 정해야 한다. 내쫓았던 생도에게 다시 모임에 참석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꾸짖는다.

앞의 열 여섯 가지 조항은 스승·제자·학우 사이에 서로 타일러 힘쓰게 하고 경계하며 명심하여야 한다. 생도들 가운데 마음을 잘 단속하여 모범을 준수하고 학문이 성취되어 뛰어나게 도(道)를 일컬을 만한 자가 있으면 회의 때에 여러 사람에게 묻고 찬성을 얻어 착한 자의 명부에 기입하고, 그 중에 뛰어난 자가 있으면 그 실제의 상태를 갖추어 스승에게 고하여 권장의 뜻을 표시하고, 만일 여러 생도들 중에 학교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여러 잘못을 저지르면 그 과실은 벗들이 보고 듣는대로 깨우쳐 주되, 고치지 않을 때에는 장의에게 고하여서 유사가 그들을 모임에서 꾸짖으며, 그래도 고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적은 허물이면 모임에서 쫓아내고, 큰 허물이면 스승에게 알려서 출재(黜齋)시키고 나쁜 자의 명단에 기입해야 한다. 학당에서 쫓겨난 뒤에 마음을 바꾸고 허물을 고쳐서 뚜렷이 선(善)에 지향하는 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시 학당에 들어오기를 허가하고 그 나쁜 자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야 한다. 만약 끝까지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나쁜 버릇이 더욱 커가고 자기를 책하는 이를 도리어 원망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스승에게 고하여 그 이름을 삭제하고 중앙과 지방의 학당에 통고한다. 무릇 허물의 명부는 반드시 법을 세운 뒤로부터 기록하고 법을 세우기 전의 허물은 추구하여 논란하지 않고서 스스로 그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고치지 않으면 그 때에야 벌칙을 의논할 것이다.

IV. 적용 방안

1. 교재 개발

「학교모범」을 사용하여 '전통윤리'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된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방침이나 오석종의 시안에 제시된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것들 중에서 지나치게 현대적 의의와 가치를 강조한 점, 현대적으로 고쳐 사용하려 하는 점, 전통윤리에 대한 문제 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데 역점을 두는 점 등과는 견해를 달리 하여 「학교모범」을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고전은 고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며 약간의 변형만 가한다면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을 사용하여 교재를 개발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

가 있는데, 첫째는 원문을 활용할 것인가,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1)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 2)원문과 현대적 해석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 3)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것만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중 1)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 「四字小學」과 같은 경우는 문장이 비교적 쉽고, 짧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암송할 필요가 있어서 가능하나 「학교모범」의 경우는 적당치 않다. 2)와 3)의 방안은 모두 현실성이 있는데 그중 어떤 방안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다음에 검토할 문제 등과 관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둘째는 그 내용을 전부 사용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 조직과 관련하여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1)내용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교재의 다른 내용과 분리시켜 다루는 방안 2)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사용하는데 교재의 다른 내용과 분리시켜 다루는 방안 3)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사용하는데 교재의 관련 내용에 포함시켜 다루는 방안이 있다. 「학교모범」의 경우는 1)의 방안과 3)의 방안이 바람직하다. 1)의 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을 직접 다룬다는 의식을 심어 주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저자의 의도와 논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지침에 의하면 '전통윤리' 교과 내용에는 학생의 학문과 학교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기본적 행동 양식을 다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모범」을 교과서의 서두에서 우선하여 다루는 것은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3)의 경우는 '전통윤리'가 여러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각각의 영역에 삽입하여 사용하면 교재의 전체적인 균형성과 경제성이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윤리' 교과서의 첫째 영역인 '전통윤리의 의의와 기본정신'에는 '自序'를 활용하고 둘째 영역인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에는 立志, 檢身, 讀書, 慎言, 存心, 事親, 事師를 활용하고 셋째 영역인 '친족·이웃·교우관계와 바람직한 삶'에는 擇友, 居家, 接人, 篤敬, 居學, 讀法을 활용하고 넷째 영역인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에는 應舉, 守義, 尙忠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첫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셋째는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교과서의 체제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오석중은 <생각할 문제>·<경문 학습>·<탐구하고 토론하기>·<정리하고 실천하기>·<각주>와 같은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¹³⁾ 본 고찰에서는 '전통윤리' 교과서 개발에 대한

13) 오석중, 앞의 글, pp.106~107.

부분적인 한 예를 알아보려 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논외로 한다. 또한 진술 형식 즉 유형의 문제는 교수 학습 방안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다루기로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쉽게 표현한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에 알맞는 내용을 다룬다. 설교적이거나 설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내용은 가급적 분량을 줄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기술상의 문제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언급한 교재 개발 방안을 종합해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학교모범」의 전 내용을 원뜻 그대로 번역하여 교과서의 서두에 배열하여 다루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원문은 번역문의 다음에 이어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학생들이 당대와 현대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고, 원문의 정신과 내용을 오늘날에 맞게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학교모범」의 내용을 통하여 전통윤리, '전통윤리' 교과, 학생·학교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스스로 익히게 될 것이다. 차선의 방법으로 「학교모범」의 내용 중 교육부 지침서 상의 '전통윤리' 교과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발췌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2. 교수·학습 방법 개발

교수·학습 방법은 교과서 개발시에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오석중은 '전통윤리' 교과서의 체제와 관련하여 경문의 이해, 탐구와 토론, 실천 학습 방법을 염두에 두었고 진술 유형으로는 기본형과 함께 탐구 중심형, 암송 중심형, 감동·실천형을 제시하였다. 탐구 중심형은 학습자가 직접 자료를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암송 중심형은 전통적 학습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어떤 경계하는 글귀를 반복 암송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삼가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감동·실천형은 성현들의 고전적인 모범 실천사례를 제시하여, 모범적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윤리적 성정이나 실천이 부족한 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학교모범」과 관련하여 보면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전통윤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체득(내면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문을 풀이하기, 경문을 외우기, 경문의 정신을 깊이 생각하기, 경문과 관련된 사례를 찾

아보기, 토론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전통윤리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혹은 전통윤리의 정신을 반영한 오늘날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내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옛 방식대로 해보기(역할 놀이, 모의 학습 등), 현대적인 방식을 찾아 만들기, 수업시간 외에 실제로 행하기(체험학습)와 같은 특수한 기법을 찾아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두루 활용하는데 「학교모범」의 세부내용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맞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특별히 고려해 볼만한 점은 전통윤리의 의미를 살려 암송과 문답을 주로 하는 전통적 강의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교과와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이 돌러가면서 읽고 나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게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만하다.

교과 과정과 교수·학습의 전개 과정의 면에서 보면 우선 '전통윤리' 교과 시간에 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교수·학습 전개 과정상 1) '전통윤리' 교과를 처음 시작할 때 다루는 방법 2) 매시간 수업 시작 전에 일정한 분량을 나누어 차례로 다루는 방법 3) 관련 내용이 있을 때만 다루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의 체제 및 유형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맞은 방법을 택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재량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통윤리' 교과에 배정된 시간이 적고 '전통윤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수업시간에만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야 할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모범」은 행동양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 중에는 오늘날에도 바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만큼 그것들을 실제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려면 많은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모범」은 학습에 임하는 자세와 학습 절차를 篤敬과 居學, 讀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대로 해볼만 하다. 교육부 지침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의하면 과거 지향적이거나 복고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통윤리의 세계성, 현재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지만 너무 현대적이거나 실용적인 것만 강조하다보면 전통

15) 조선시대의 유학 교육기관에서는 교수·학습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강의(講儀)법을 시행하였는데 오늘날에도 좋은 참고가 될 만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김경식, "유교사회의 교육적 관행",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pp1999-2002, 참조

윤리를 학습하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통적인 내용의 학습만 아니라 방식도 그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⁵⁾ 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전통을 이어 받는 방식의 일환으로 옛 것을 그대로 행해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옛 '서당' 식으로 예절을 배우는 형태가 그것이다. '전통윤리' 교과에서 「학교모범」의 일부 관련 내용을 그대로 실시해 본다면 학생들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고찰의 목적은 '전통윤리' 교과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古典을 이용한 자료의 개발에 있다.

'전통윤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3학년이 선택하는 과목의 하나로 4단위로 실시된다. 교과 성격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윤리적 삶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음미하여 한국인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인식과 자세를 보다 확고히 정립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실천했던 윤리적 삶의 기본 정신과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내용은 4개 영역에 12개의 주제별로 36개 세부항목이 단계별로 구성된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전통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잘 부각시켜 학생들의 실천 의욕과 행동 성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활용할 것 등 7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전통윤리' 교과서의 개발은 현재 연구 중에 있다. 그 내용 선정의 원칙은 첫째, 우리 조상들이 소중시해왔던 전통윤리 규범과 정신들 중 특히 오늘날에도 그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둘째,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인간화·도덕화와 사람과 자연 사이 관계의 일체화의 회복에 새로운 대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다. 학습의 원리는 전통윤리 규범을 권위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들을 윤리적 근본에 부합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자세를 갖게 하며 나아가 전통윤리 규범의 이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그 내용 자료로 우리의 윤리적 내용을 담은 古典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본 고찰에서는 「학교모범」을 소재로 하여 그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학교모범」은 울곡 이이의 저술로 그 내용은 自序와 16장의 구체적인

규범 그리고 학생의 선발과 양성 방안을 다른 事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고찰에서 다루는 대상인 自序와 16장의 규범은 교육의 목표와 과정, 방법을 총체적으로 다룬 교육 현장적 성격과 학교 생활의 마음 가짐과 행동 그리고 학생의 사회 생활에 대한 마음 가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학생의 행동지침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모범」의 의의는 첫째, 학교 교육의 이상, 목적, 과정, 내용,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문관, 교육관을 정립하여 당대의 제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의미가 오늘날에도 의의를 갖는다는 점이다. 셋째, 고등학생 수준의 전통윤리 교육 교재로서 적합하다는 점이다.

「학교모범」을 실제로 오늘날의 교육에 이용할 때는 가급적 모든 내용을 살리되 아주 맞지 않는 내용은 빼거나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은 立志, 檢身, 讀書, 慎言, 存心, 事親, 事師, 擇友, 居家, 接人, 應舉, 守義, 尙忠, 篤敬, 居學, 讀法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용 방안을 교재 개발의 면에서 보면 원문 활용 문제, 사용 부분의 선택과 내용 배열 문제, 내용 진술의 체제와 유형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학교모범」의 전 내용을 원래 뜻 그대로 번역하여 교과서의 서두에 배열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원문은 번역문에 이어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학생들이 당대와 현대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고, 원문의 정신과 내용을 오늘날에 맞게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학교모범」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통윤리, '전통윤리' 교과, 학생·학교 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스스로 익히게 될 것이다. 차선의 방법은 '전통윤리'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발췌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면에서 보면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통윤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체득(내면화)하도록 하기 위한 경문 풀이하기, 경문 외우기, 경문의 정신에 대한 사색, 경문 관련 사례 찾기, 토론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전통윤리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혹은 전통윤리의 정신을 반영한 오늘날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내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옛 방식대로 해보기(역할 놀이, 모의 학습 등), 현대적인 방식을 찾아 만들기, 수업시간 외에 실제로 행하기(체험학습)와 같은 특수한 기법을 찾아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두루 활용하여 「학교모범」의 세부 내용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맞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도 암송과 문답을 주로 하는 전통적 강의법을 활용한다면 다른 교과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돌러가면서

읽고 의견을 말하는 방법도 해 볼만하다. 그 밖에 교과외의 자유재량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모범」은 학습에 임하는 자세와 학습 절차를 篤敬과 居學, 讀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대로 실시해 볼 만하다. 단순히 과거 지향적이거나 복고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일부 관련 내용을 그대로 실시해 본다면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교과과정의 개발에는 '전통윤리' 교과가 중등 교육과정의 최고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 선택과목이라는 점, 내용면에서 전통적인 것이 갖는 시·공간적 제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교과를 통해 이루려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栗谷全書, 卷十五 雜著(二), 學校模範
-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별책 6)
- 김경식, '유교사회의 교육적 관행',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하우동설, 1998.
- 박영완, 『學校模範』, 서울:현대사, 1984.
- 손인수, 『율곡의 교육사상』, 서울:박영사, 1982.
- 『한훤당·율곡·우계의 교육사상』, 서울:배영사, 1989.
- 오석중,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심화 선택과목 「전통윤리」의 적용 방안과 교과서 개발", 『도덕윤리과 교육(10호)』, 한국도덕 윤리과 교육학회(편), 1999.
- 이경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방향",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학술 발표대회 자료, 1999.)
- 정재걸, "학교교육과 전통 문화 교육", 『전통과 현대(98. 여름호)』, 서울:전통과 현대사, 1998.
- 함재봉, "한국정치 담론의 어제와 오늘", 『전통과 현대(제2호)』, 서울:전통과 현대사, 1997.

Abstract

A Reivew on An Applicable Way
of 'Traditional Ethics' Subject for the
11th-12th Grade of High School

Bang-ju Ya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applicate 'traditional ethics' curriculum to the 11th-12th grade of high school, for whom a new type of curriculum will be put into operation.

A lot of classics have been used to develop 'traditional ethics' curriculum. Among them, 「school model」 has the special usefulness. The school model has a significance like a kind of the Charter of Education, because it offers life ethics as well as the viewpoint of learning and teaching to student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ext development, it is desirable to put the school model in the introduction of the text so that students acquire their attitudes to learn and manners to behave. Or it can be an alternative to insert the related contents properly into every unit of lesson. While taking only the important parts in the case of using the original edition, it is usually better to use the copy translated in modern meaning.

Second, in relation to the method for teaching and learning, i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method of other subjects, because it adopts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that focuses learning by heart and catechism. In other circumstances, it can be an alternative for students to discuss each other after reading a book.

I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like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ree points of 'traditional ethics' curriculum thoroughly. One, it aims to students of highest level of high school. Two, it is the selective course. Three, it has the traditional meaning in contents.